

목 5월 30일

26편 본시에서 다윗이 미워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각각 무엇이라고 고백하나요?

1) 미워하는 것:

2) 사랑하는 것:

27편 본시에서 다윗은 하나님은 자신에게 어떤 분이시라고 찬양하나요?

·1절:

·5절:

·9절: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28편 본시 4-5절에서 다윗은 악인들이 행하는 일에 대해 하나님께서 파괴하고 건설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악인들의 죄는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29편 본시는 온 우주를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위엄과 주권, 권능을 찬양한 다윗의 찬양시입니다. 본시에서 반복되어 찬양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주어(subject)로 표현되고 있나요?

화 5월 31일

30편 본시는 인생 말년에 이른 다윗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가운데 지금까지 자신을 보호하고 인도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노래한 감사 찬양시입니다. “그의 노염은 ()이요, 그의 은총은 ()이로다. 저녁에는 ()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이 오리로다.”

31편 본시는 구원을 바라는 다윗의 기도로, 긴박한 호소(1-7, 8-18절)와 구원의 확신 및 찬양(8, 19-24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으면서도 아무에게도 동정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자신을 무엇에 비유하고 표현하고 있나요?

32편 본시는 다윗이 죄를 용서받은 자의 행복을 노래합니다. 흉수가 범람하는 것 같은 큰 시련이 닥치는 것은 또한 무슨 기회가 될 수 있나요? (힌트 6절)

33편 본시는 말씀으로 세계와 그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또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많은 군대나, 힘이 센 용사, 군마 등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살리신다고 고백하나요? (힌트 16-22절)

수 6월 1일

34편 본시는 사울을 피해 블레셋으로 망명한 다윗이 그곳에서도 신변의 위협을 느끼자 미친 자로 가장하여 유대 광야로 탈출한 후 그곳에서 지은 시입니다. 다음의 이것은 무엇인가요? “의인은 "이것"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이것"에서 건지시는도다.”

35편 본시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 지은 비탄시입니다. 다윗이 원수가 병들었을 때 그들을 위해 기도 하였던 것이 오히려 자신에게 돌아왔다는 고백이 몇 절에 기록되어 있나요?

36편 본시에서 다윗은 죄악이 횡행하는 현실을 고발하면서 그와 대조적으로 인간을 돌보시고 지켜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증거합니다.

1) 악인의 눈에는 무엇이 없나요?

2) 악인의 입에서 어떤 말들이 나오나요?

37편 노년의 다윗은 악인의 번영을 보고 회의하는 젊은 이들에게 자신의 신앙과 경험에 입각해 위로와 권면을 합니다. 즉 악인의 형통은 아침에 잠깐 푸르다가 저녁에 시들어 버리는 풀과 같은 것이지만 의인은 잠시 고난당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일으켜 주시고 축복하실 것이니 낙망치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하고, 참고 ().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하지 말지어다.”

목 6월 2일

38편 본시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자신의 죄를 회개한 후, 하나님의 진노와 긍휼을 동시에 기념하기 위해 이 시를 짓고 불인 제목으로 추축됩니다. 다윗은 무엇이 무거운 짐 같아서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나요?

39편 인생 말년의 다윗이 자신의 삶을 회고하는 가운데 지난 날의 과오를 뉘우치면서 지은 시입니다. 본시는 인생의 무상함과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소망을 찾을 수 있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사람들은 그림자처럼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 하며, 재물 쌓기에 급급하지만, 다윗은 모든 소망이 어디에 있다고 고백하나요?

40편 본시는 다윗이 절대적 위기 상황에서 구원받은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노래입니다. 2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상황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으로 표현합니다. 성도님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때가 있었나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그 상황에서 끌어 올려 주셨나요?

41편 본시는 병상에서 드리는 다윗의 기도시입니다. 다윗이 병상에 누워있는 자신을 조롱하고 배반한 사람들과는 달리, 자신을 돌아보시고 치유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말씀을 적어 보세요.

금 6월 3일

42-43편 시인은 성전예배마저 제대로 드릴 수 없는 현재 상황을 탄식하면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듯 주의 성전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음을 기록하였습니다. 시인은 42:5, 11절, 43:5절에서 반복하여 노래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 하는가?”

44편 시인은 영광스러웠던 이스라엘 민족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것이 자신들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시인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3절에서 어떻게 표현하나요?

45편 본시는 이스라엘 왕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지은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시인은 자신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노래를 만들어 부르는 혀를 무엇에 비유하였나요?

46편 본시는 이스라엘이 히스기야 시대에 앗수르로부터 공격을 받아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시인은 이 전장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믿음을 노래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이 되어 주시나요? (1절, 7절, 11절)

토 6월 4일

47편 본시는 매년 1월 1일에 지키는 나팔절에 사용되던 찬양시로, 하나님의 주권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시인은 본시에서 하나님을 무엇으로 표현하나요? (2절, 6절, 7절)

48편 본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곧 시온에 대한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어느 순간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나요?

49편 본시에서 시인은 세상서 부가 아무리 소중하다 해도 죽음 저편까지 가져가지 못하기에 부를 희망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고 교훈합니다. 시인은 12절과 20절에서, 존귀하지만 이런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마치 무엇과 같다고 하나요?

50편 본시는 레위 성가대의 대장인 아삽이 지은 시로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 지혜시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는,
1) ()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2) 지존하신 이에게 네 ()을 감으며
3)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의 ()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